

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요한계시록-

이시야 9:6-7, 요한계시록 19:11-16

정윤돈 목사님

* 시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 계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을 치유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절대미션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데, 성경 전체 안에서도 핵심주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걸 놓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일어날 최후의 환란’ 정도로 이해한다. 인류의 종말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걸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인도 많은 질병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가정의 종말, 국가의 종말, 국가의 재앙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은 아무리 잘 돌아가도 문제투성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주시고 천사도 고난을 주고 사탄도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전쟁과 질병이 일어나지만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평안하던 어려움이 오든 속지 않고 우리에게 보장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해야 하고, 편

하지 않게 살고 있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해야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놀고 여행하고 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근본적인 참 행복을 누리고 치유 받고 온전해진다. 세상의 다른 건 다 불안정하다. 최종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 땅 최종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것이고, 미션홈이고 지교회다. 그리고 이 행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탐사역이다.

이시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시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백 년 전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마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언하는 것만 같다. 한 아이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짧은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칼빈은 성경주해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 기독교강요를 쓸 당시 천주교 교세가 강한 프랑스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처참하게 화형하고 고문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정확한 틀을 제시했다. 조나단 에드워드같은 청교도 신학자는 후천년설을 주장했고, 메튜 헨리라는 주석가도 계시록을 주석했고, 헨리 니슨도 주석했고, J.K 빌은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고, 메리 클라인이라는 신학자도 언약적인 신학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천재적인 석학들이 계시록을 주석하고 기준을 세웠다. 오히려 우리는 당시보다 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는 ‘미사일’과 같은 말들이 나온다. 바다 1/3이 피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체르노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키를 말씀드리겠다. ① 첫째 키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승리’이다. 개신교에는 나라의 멸망, 개인의 멸망, 지역적 멸망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한다. A와 Z인 것이다.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최후의 날이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죽는 날이 온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끝 날, 인생의 끝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죽는 날도 준비해야 하고 늙는 날도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긴 강권리 하셔라. 말세신앙, 마리아타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 ② 두 번째 키는 ‘교회와 성도의 인내와 승리’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 인내하지 않고 포기하면 실패자가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단지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③ 세 번째 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④ 네 번째 키는 ‘사탄과 불신자들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은 지옥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결말이다. 이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면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더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들과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징들은 주로 복음과 그리스도와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틀 안에서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의 교단들은 삼위일체 등 진리는 같지만 그 안에 신학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침례교에는 헌법도 없고, 장로도 없다. 깊이 있는 성경주석이 있지만 신학적인 교리가 없어서 이단이 많다. 개인양육 교제는 많지만 신학적 울타리가 없어서 깊이 들어가면 위험한 경우도 많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들과 비유들이 많다. 이단들은 주로 비유와 상징들을 잘못 해석한다. 전체 내용의 주제를 알고 봐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

(1) 상징에는 숫자상징, 색채상징, 물건 및 자연상징 등이 있다.

(2) 이 상징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① 첫째로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방법이다. '어린 양 예수'가 계시록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다. 출애굽하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부터 어린 양은 구주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 구약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린 양이 예수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후 죽였다.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연결된다. ② 두 번째로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이해하는 방법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백마'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마도 나오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마도 나온다.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③ 세 번째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참고해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당시 승전하면 백마를 탔다. 우리는 백마를 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지만 백마는 황제, 승리, 개신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와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대장되시는 것을 상징한다. ④ 네 번째로 개혁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면 완전히 틀린 내용인데도 넘어가 버린다.

(3) 숫자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성경에 비해 다양한 숫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대응하는 뜻과 숫자가 있다.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14'가 된다. 유대인들은 숫자 14를 보면 다윗을 떠올린다. 당시 숫자를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금방 떠올랐던 것이다. ① '7'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등으로 나타난다. ② '12'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다. '24'는 신, 구약의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③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를 표현한다. ④ '4'는 사방, 사각형, 온 세상과 창조세계를 상징한다. ⑤ '6'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결함을 상징한다. ⑥ '10'은 완전함 또는 충만함을 나타낸다. ⑦ '1,000'은 매우 큰 수, 무한함, 영원함을 상징한다. ⑧ '3.5', 3년 6개월은 7의 절반으로, 불완전함과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다. ⑨ '2'는 두 감람나무, 증인을 말한다. 예수님도 두 사람씩 70인 제자를 보내셨다. 전도팀을 만들 때도 포럼이 되는 한 사람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럴 때 5인 1조가 만들어진다. 전도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전도의 눈이 열렸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려면 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전도도 한 명,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이 한 명도 전도 못 하는 것은 전도하려는 대상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여정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먼저 집중해야 한다. ⑩ '100'은 큰 수를 나타낸다. ⑪ '14만 4천'으로 말이 많은데, 여호와증인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말한다. 14만 4천은 12(구약의 선택받은 자) x 12(신약의 선택받은 자) x 1,000(영원함)으로, 이는 창세 이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단과 다르게 비유법들

을 잘 알아야겠다. 성경 안에서 과장법을 활용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집착하게 되고 이단에 빠진다.

(4) 어린 양, 사자, 용 같은 동물은 각각 예수님, 권능, 사탄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5) 흰색, 붉은색 등은 순결, 죄와 심판 등을 나타낸다.

(6) 물건 및 자연상징에서 금촛대, 나팔, 바다, 별 등은 교회, 하나님의 심판, 혼란 등을 상징한다. 이러한 모든 상징들은 다른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이다. 오늘은 오늘 읽은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승리하신 우리의 개신장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②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목상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목상하면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깊이가 깊어진다. 깨달음과 깊이가 깊어지면 능력도 다르게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 전도의 역사, 여러분의 축복이 다르게 나타난다. ③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하나님은 공의와 공법으로 사탄, 세상과 싸우신다. ④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과 심판의 열정을 나타낸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우리를 완전히 통찰하고 꿰어보신다. 그 그리스도의 눈빛을 상징하고 있다. 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은 권위와 왕권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황제들에게 좋은 관을 만들어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 황제들에게는 왕관이 여러 개 있었다. '많은 관들'은 예수님이 모든 왕중의 왕이심을 의미한다. ⑥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비밀을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⑦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⑧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신다. ⑨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국의 천사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나라도 세계복음화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신분, 권세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다.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 문제 앞에서 근심,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에 잡힌다.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⑩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 포도가 짓이겨지는 것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다. ⑪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승리하게 된다.

끝으로 복음집중, 말씀집중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땅끝복음화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한계와 아픔과 염려가 많은데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땅끝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십시오.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